



(사)한국WEC국제선교회

세종글로벌학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C. T. Studd)



학교소식

○ 2학기 개학

1월 4일 2학기 신입생 4명을 포함하여 17명의 학생이 학교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성경통독 및 오후산책

매일 함께 아침에는 성경통독을, 점심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여 영육 간의 균형 잡힌 건강을 추구합니다.

○ 학생회 조직

학기 초 학생투표에 의해 임원들을 선출하여 학생회를 조직하였고, 매주 월요일 5교시 학생회의를 하였습니다.

○ 눈썰매장

1월 7일 태조산 눈썰매장에 가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어울려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 설방학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설연휴를 맞아 모든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 천안박물관 견학

2월 4일 천안박물관을 방문하여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박물관



점핑클레이



스키캠프1



케익만들기



스키캠프2



기말고사



체육수업

○ 점핑클레이, 케익만들기

2월 중 한웅선 목사님 가족이 방문하여 방과후 수업으로 점핑클레이, 체험학습으로 케익만들기를 지도해주셨습니다.

○ 백석대학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백석대학교회에서 주최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스키캠프

3월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에 스키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뮤지컬 관람

3월 1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이기풍 목사님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 "첫 열매"를 관람하였습니다.

○ 토요일 악기수업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강인혁·김문희 선교사님의 지도로 키보드, 기타, 드럼, 베이스기타, 플룻 등 다양한 악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기말고사

3월 마지막 한 주 동안 기말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학예발표회

4월 5일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학기 동안 외운 성경 암송, 영어 콩트 등을 준비하여 학부모님 및 여러 내빈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기도제목

-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엡4:2-3)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학교가 되도록
- 세종글로벌학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되고 진행이 되도록
- 학생들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 장기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 한국어권 : 교무행정, 논술지도, 고등국어, 과학
 - 영어권 : math, science, English literature
-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재정 후원 교회 및 개인들이 연결되도록
- 학교건축의 모든 계획과 진행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도록
- 세종글로벌학교가 위치한 천안 동남구 안서동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 감사합니다 : 주방업무를 맡아주실 백옥순 선교사님, 악기수업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보내주심,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인도해주심

“세종 이야기 전시관”에 다녀와서

정○○ (고등반)

작년 12월 18일, 나는 우연히 교보문고에 갔다가 호기심에 세종대왕 동상을 보러 갔다. 처음에 동상만 있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동상 뒤로 가봤다. 나는 거기서 전시관 입구를 발견하고 날씨도 춥고 시간도 남아돌고 해서 심심풀이로 구경하러 들어갔다. 처음엔 문만 열고 들어가면 전시관이 있는 줄을 알았는데 귀찮게 전시관은 지하에 있었다. 그래서 한참 계단을 내려가 전시관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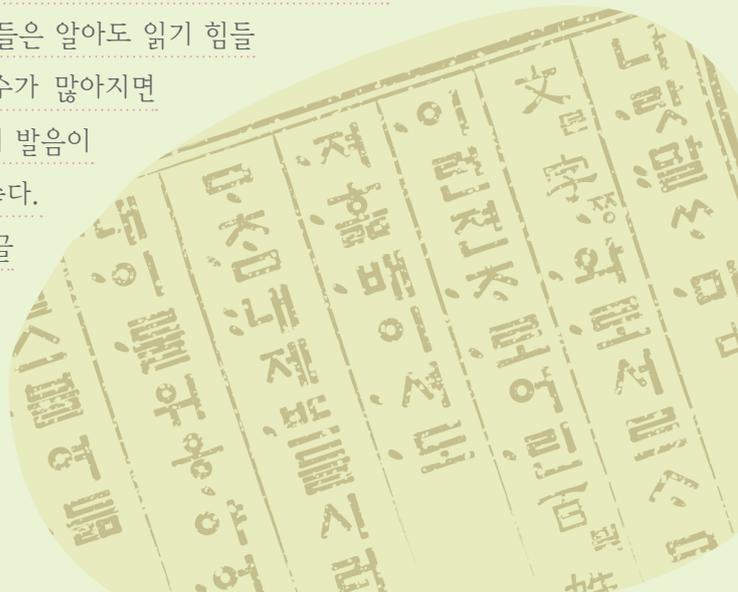
세종 이야기 전시관은 인간, 세종, 민본사상, 한글창제, 과학과 예술, 군사정책, 한글 갤러리, 한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카페와 기념품점도 있었고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이라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시관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 옛날에 쓰던 한글과 지금 쓰는 한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시관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는 너무 낯선 한글이라고 느꼈다.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어쨌든 나는 공부하러 전시관에 간 것이 아니라 추위와 심심함 때문에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한글 갤러리는 참 인상적이었다. 거기서는 글자의 뜻을 그럴듯한 느낌으로 적어놓았다.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글자가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그렸다고 해야 되나 적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렇게 작품처럼 전시해놓았다.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어떤 부족이 자기만의 말은 있는 데 글자가 없어서 글자를 만들어야 되었는데 만드는 것보다 우리 한글을 자기 발음에 맞게끔 조금 고쳐서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글은 정말로 거의 모든 발음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현하면 괴상하고 다른 영어인 콩글리쉬 발음으로 읽혀지지만…….

어쨌든 나는 세종대왕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이, 그것도 말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을 만든 것을 보면 참 영민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다. 비록 내가 이 한글 때문에 국어공부와 이런 감상문을 써야 하는 귀찮은 점이 있지만 한글 때문에 어려운 한자를 그럴 필요가 없는 편리함이 생겼고 그 많은 미술 작품 같은 한자를 외울 필요도 없게 되었다.

나는 한글을 알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나라의 글자들은 외우지 않으면 읽지 못하고, 입을 줄 알아도 쓰기 힘들지만 한글은 외우기도 쉽고 쓰기도 쉽기 때문이다. 한글은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만 알면 어떤 글이든 대부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글자들은 알아도 읽기 힘들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한글처럼 표음문자이지만 알파벳의 개수가 많아지면 영어를 쓰는 사람도 발음하기 어렵고, 글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어 읽기가 꽤 힘들다. 반면 한글은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세종 이야기 전시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앞으로 한글을 소중하고 올바르게 써야겠다.





기숙사이야기

○ 여학생 기숙사

공주와 함께 사는 이야기

하은혜 선생님 (여자기숙사)

상큼한 향기만큼... 찢한 향기(?)만큼
 토요일 저녁식사를 하며 여자기숙사의 아기자기한 맛을 즐겨요!! 뽕소린가 했더니 오이로 마사지를 하자는 말이다. 오이를 감자 깎는 칼로 얇게 벗겨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얼굴에 올려놓으니 서로 셀카로 찍으며 사뭇 즐거워한다. 오이를 올려놓다보니 정말 똑같은 얼굴이 없다. 첫학기에는 민낫을 보여주는게 참 어색했는데... 겨우 6-7개월이 지났는데 자기들끼리 친해져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또 같이 찍으면서 표정들이 밝다.

매주 화요일 황금 같은 휴일(Day-Off)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오늘은 뭘 일이 있었을까? 잘 지내겠지?’ 등등의 생각을 하며 문을 연다. 그런데 웬지 수상한 기운이 감돈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이 밖에 서있는 품이... “화장실문 열지 마세요!” 를 외치는 아이들이다. 김새가 또! 화장실이 막힌 것이다. ☆☆이가 (고2) 뚫으려고 이리저리 노력해 봐도 안되고 거시기 물이 올라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아무리 해도 안되는지 포기하고 도움을 청한다. 단번에 뚫어주고는 나오는 누군가에게 아이들은 막힌 변기 뚫기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준다. 부끄러울 법도 한데 속스러울 법도 한데 웬지 아무렇지도 않은 이 느낌! 보여줄 것 다 보여준 사이랄까? ☆☆이가 다가와 “우리 정말 찢한 향기(?)만큼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며 활짝 큰 미소를 띤다.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 기도제목

-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교제하며 나무가 사람같이 성장하도록
-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있도록
- 서로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 기숙사 사역자 두 가정 및 기숙사 보조가 생기도록
- 기숙사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 남학생 기숙사

우리들의 말! 말! 말!

(금녀의 집에서...)

[기숙사의 일상]

우리는 항상 7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잔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한다. 그런 복된 생활을 누리며 생활하니 우리는 모두 행복한 자들이다.

- 고인환 선생님(남자기숙사)

남자 기숙사요

우리는 모두 하나요

불뚱이 튀고 배가 침몰해도 우리는 하나요

항상 하나요

우리는 무서운 남자 Dorm선생님의 근육(^^;)아래에서 도 우리는 하나요.

- ○○이 시

야, 안돼--- 반 애들이 공부 너무 잘해서 비교돼.
 감사합니다, 체육 때 배우는게 다양해서 감사...
 감사합니다. 체험학습, 다양한 활동이 많아서 감사...
 감사합니다. 너무 글로벌이라서 감사...
 감사합니다. 성경 외우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1주일에 1권씩 책 읽게 해주셔서 감사(?)

- ◇◇이 생각, (개그콘서트 버전)

스키캠프가 재미있었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나는 키 180cm까지 크고 싶어요...

- ◇◇이 생각

학교의 생활이 매일매일 재미있어지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 다녀온 스키캠프를 통해 스키를 배우고 다른 학생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항상 내일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 △△이 생각

세종글로벌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학자가 될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 ♡♡이 기도



감사합니다.



○ 학교 소개

세종글로벌학교는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보기 위해 2011년 9월 1일 (사)한국WEC국제선교회에서 설립한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5개 선교단체를 통해 파송되어 6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자녀 1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번 학기 섬기신 분들

진준규 · 하은혜(여학생기숙사 / 행정, 재정), 고인환(남학생기숙사, 체육), 김화영(행정, 재정), 강인혁 · 김문희(기숙사 프로그램 실용음악), 이상희(여학생기숙사 보조), 이희정(여학생기숙사 보조), 진세연(기숙사프로그램 힙합댄스), 채은화 · 윤화숙(교장 / 교무, 주방), Daniel & Arnelle Helbling(영어교과, 영어, 불어, SAT), 백옥순(주방), 황자경(영어교과, ESL), 송화연(중학반 담임, 사회, 국사), 강수경(음악), 김성결(보조교사), 김영아(피아노개인지도), 김주연(주방보조), 김현영(국어개인지도), 노애린(영어교과 수학 및 과학), 박원형(진로상담), 박현진(국어), 송정임(주방), 안주호(고등반 담임, 수학, 과학), 오윤숙(중국어), 윤지혜(성악지도), 정에스터(미술), 조옥미(중학수학), 최주이(주방보조), 한웅선 · 이필복 · 한예림 · 한에녹(방과후수업), 천안서부교회 5-6여선교회(주방봉사), 김동희(드럼지도), Paul & Kim Hutchinson

○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학교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들과 방문해주신 분들,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발행처 : (사)한국WEC국제선교회 세종글로벌학교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14 2층(안서동 202-5)
- 전화 : 041-522-4552 • FAX : 041-522-4553
- 홈페이지 : www.runkorea.org 내 '세종글로벌학교'